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0호> 2017년 3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호리 순로(堀 俊郎)

다가오는 5월, 제 19회 벳푸 아르헤리치 음악제가 개최되며, 올해는 오자와 세이지 지휘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 특별 콘서트도 열립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프로모션 비디오 「OITA PEACE SYMPHONY」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불과 한 달만에 재생 횟수 100만 회를 달성하였습니다. 오이타의 매력이 잘 드러난 영상이니, 여러분들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youtu.be/feSRuQ3Jdb0>

<오이타현 주목 기사>

유학생 현내 취업 관련 의견 교환회 개최

현과 오이타경제동우회가 ‘유학생 현내 취업 관련 의견 교환회&교류 카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내 기업과 유학생, 대학 관계자 및 행정 지원 기관 등 유학생의 현내 취업에 대한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동우회 회원 및 현내 대학 유학생을 중심으로 55명이 참가하여, 7그룹으로 나누어 교환회를 가졌습니다.

활발한 의견 교환회를 마친 후, 문제 해결책으로서 기업 및 취업에 관한 정보 발신, 채용 전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학생을 위한 합동 연수 및 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획을 늘려 현내 기업과 유학생과의 교류 및 매칭의 기회를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국제정책과】



<오이타현 소식>



‘유~원지’ 클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

벳푸시가 11월에 공개한 영상 ‘유~원지’를 마쓰리 기간인 7월 29일~31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며, 2월 10일~4월 10일까지 클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3월 1일에 당초 목표액이었던 천만 엔을 달성하며, 더 많은 놀이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1억 엔을 최종 목표로 정했습니다.



오이타공항 국제노선 충실

작년 9월에 취항한 오이타와 타이중시를 잇는 만다린 항공의 정기 차터편 운항이 올해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 티웨이 항공이 운항하는 오이타와 서울을 잇는 정규 항공편이 3월 말부터 2편을 추가하여, 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운항(1일 1왕복)으로 증편되었습니다.



이주 희망지 오이타현 7위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센터가 2016년 1월~12월에 걸쳐 실시한 이주 희망지 조사에 의하면, 오이타현은 9위에서 7위로 지난 조사보다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규슈 지역으로는 5위가 후쿠오카현, 9위, 10위가 나가사키현, 미야자키현으로 규슈의 인기가 높아졌음을 실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0호> 2017년 3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쿠니사키 버스 투어

쿠니사키시는 독자적 불교문화가 꽃을 피운 쿠니사키 반도 동쪽에 위치해있는 곳으로, 인구 약 3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쿠니사키시의 오이타 공항은 여러 번 가봤지만, 정작 쿠니사키시를 관광하기 위해 방문해 본 적은 없었기에, 쿠니사키시와 쿠니사키관광협회가 주최하는 ‘쿠니사키GO! 사키치군 버스’ 투어가 있다고 하여, 참가해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른 2월,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니 쿠니사키시의 마스코트 캐릭터 사키치군이 그려져있는 초록색 미니버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가자 이름을 체크하고 버스에 오르면, 자리마다 쿠니사키시의 관광 팸플릿과 뱃지가 놓여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관광 팸플릿을 읽다보니 어느덧 출발 시간인 오전 9시, 오이타역을 출발한 사키치군 버스는 뱃푸역을 경유하여 약 한 시간 반을 달린 뒤 쿠니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첫번째 목적지는 ‘아키공작사’, 골판지 상자로 만드는 조형물인 d-torso의 기획 및 제작,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아키공작사는 7년 전부터 폐교가 된 초등학교로 회사를 이전하여 교무실은 사무실로, 교장실은 응접실로, 또 각 교실을 창고 및 전시실, 촬영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곳곳마다 초등학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d-torso라는 이름의 유래는 골판지 상자를 뜻하는 단보루와 동체를 의미하는 토르소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골판지 상자로 조립식 마네킹을 만들기 시작하여, 점차 인테리어, 잡화, 동물, 캐릭터 등으로 범위를 넓혀,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입체 상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네킹 이외에도 고질라, 미키마우스, 무민, 십이지신의 동물 등 크고 작은 d-torso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 모양의 d-torso도 있었는데, 사람의 모습을 3d로 재현하여 표정부터 옷의 주름까지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기프트 상자용의 d-torso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 곳 아키공작사의 특별한 점으로는 ‘쿠니사키 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정식으로 도입하였으며, 도시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닌, 이 곳 쿠니사키만의 고유한 시간 속에서 신선한 감각과 발상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4일 근무, 3일 휴일 제도를 ‘쿠니사키 시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투어 참가자 모두가 부러워하였으나, 아키공작사의 마츠오카 대표는 처음 시도할 때는 신선했지만 어느덧 쿠니사키 시간이 시행된지 4년을 맞이하며, 직원들에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져버린 것은 아닌가하는 고민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키공작사의 견학이 끝날 무렵, 투어 참가자들에게 미니 d-torso를 하나씩 골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수 십가지 종류 중 어떤 것으로 할지 참가자 모두 행복한 고민을 하며, 고르기에 열중이었습니다. d-torso는 아키공작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0호> 2017년 3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쿠니사키 버스 투어



아키공작사 견학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바이엔노사토(梅園の里)’로 향했습니다. ‘바이엔노사토’로 향하는 길에는 이름대로 흐트러지게 핀 매화가 봄기운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이엔노사토는 식사 뿐 아니라 온천, 숙박, 천문대 시설이 갖춰져있는 곳으로 주변에는 캠핑 시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메뉴는 회와 튀김요리 등 한 상 가득 차려진 정식으로, 투어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좌선체험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센푸쿠지 절’에 도착하였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도착한 센푸쿠지는 입구에서부터 오랜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1524년에 지어진 ‘센푸쿠지 불당’은 큐슈에서도 제일 오래된 불당으로 국가지정중요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지스님으로부터 좌선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좌선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좌선체험용 방석은 일반 방석보다 단단하고 둥그란 모양으로 중심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좌선체험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함과 안정을 되찾으려 했으나, 익숙치 않은 결가부좌 자세로 인해 다리가 저려오며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약 30분 정도의 좌선체험이 끝나 회관으로 돌아가니 차와 다과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이후 해파리가 나오는 연못 등을 구경하며, 사찰 내를 산책하고 버스에 올라, 다음 목적지인 ‘니시노세키 카야시마 양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1873년에 창업하여 지금은 5대째가 우운영 중인 니혼슈(日本酒) 니시노세키를 만드는 카야시마 양조장은 소박한 외관과 달리 내부에는 누룩을 만들고 숙성시키는 저장고와 넓은 마당까지 있는 매우 큰 규모의 양조장이었습니다. 양조장을 한바퀴 돌고 나오니, 어느새 시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니시노세키 준마이와 안주가 차려져있었고, 한 잔 따라마셔 보니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또 시음 후 직접 구매해 갈 수 있었습니다.



사키치군 버스는 마지막 목적지인 ‘사토노에키 무사시’로 향했습니다. 오이타 공항 바로 옆에 있어서 공항에 갈 때마다 지나친 곳이었습니 다. 우리나라의 휴게소와 비슷한 곳으로 안에는 식당과 특산물을 파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투어에 참가하며 받은 쇼핑 쿠폰 500엔도 이 곳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쿠니사키시는 키위 생산지로서도 유명하여, 이 곳에서 파는 키위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명물이라고 합니다. 짧은 쇼핑을 마치고 사키치군 버스 투어가 끝났습니다.



쿠니사키시는 전철이 다니지 않아 차가 없이는 관광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사키치군 버스 투어를 통해 다양한 곳에서 체험과 견학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키공작사에서 d-torso를, 양조장에서는 술 지게미를, 센푸쿠지절에선 좌선체험하는 모습의 사진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등 관광은 물론 쿠니사키시의 정이 느껴지는 버스 투어였습니다. 쿠니사키시에는 사키치군 버스 투어 이외에도 다양한 버스 투어가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버스 투어를 통해 쿠니사키시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